

미 국회 결의안 121 통과에 대한 이용수 성명서

121 결의안의 통과는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 시민사회의 승 리이자 세계 양심의 승리입니다.

먼저, 펠로시 의장님 이하 미연방 하원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오신 미 전역에 걸친 H.R. 121 연대 여러분께 너 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초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세계 양심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60여년 간을 고통 속에서,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찾기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번 121 결의안의 승리는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야 만다는 그 소중한 증거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없어져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범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시아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를 위한 노력에 미국 국회가 앞장서서 일본의 적극적인 반성과 행동을 요청하는 특별한 의 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국 국회와 국민, 세계여론의 요청에 부응하여 일본 정부는 공식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이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보다 먼저 가신 한 많은 영령을 생각합니다. 십 대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그 한 많은 이십만 명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승리를 먼저 가신 그 소녀들과 함께합니다.

이용수